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6호 [루게 제24884호] 주제104 (2015)년 4월 16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경비행기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자력갱생의 결정체인 경비행기 개발에 기여한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을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인 당중앙위원회 청사로 부르시어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김춘섭 동지, 리병철 동지, 조춘룡 동지, 장창하 동지가 함께 참가하였다.

경비행기 개발자들을 평양에 초청해 주시고 영원히 잊지 못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대양절에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하늘길은 은덕을 베풀어 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는 한없는 행복을 향하여 참가자들의 가슴은 새차게 뛴뛰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집무실에서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경비행기 개발을 직접 발기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몸소 풀어주시였으며 개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키시며 오늘의 경이적인 성과를 안아오시고도 모든 영광을 자기들에게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참가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식의 경비행기가 개발된것은 주체적항공공업 발전에 살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고 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자랑찬 승리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모든것이 국산화된 경비행기들을 훌륭히 만들어낸 과학자, 기술자, 로동자, 일군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의 성과를 통하여 당이 제시한 최첨단돌파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 세계와 당당히

겨울수 있는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이 힘있게 과시되었으며 나라의 항공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가 마련되였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당의 전투적과업을 결사관철할 불라는 일념,



견인불발의 의지를 안고 1950년대 군자리정신으로 투쟁함으로써 조선의 결심은 곧 실천이라는 것을 다시금 실증하였으며 조선로동당창건 일흔돐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한데 대하여 거듭 지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가 터져올라 천지를 진감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이 바라내대로 여러 기종의 비행기들을 개발생산하기 위한 투쟁에서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높이 발휘함으로써 우리가 만든 비행기들이 선군조선의 하늘을 뒤덮게 할 불라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당과 국가 책임일군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숭고한 경의 표시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15일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시며 주체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천출위인상과 영광스러운 혁명력사, 불멸의 업적을 길이 전하는 주체의 최고성지는 숭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향열에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록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에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향열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또한 조선인민군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립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땡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사상리론 활동과 탁월한 령도,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다함없는 경의의 마음을 안고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우리 근대와 인민, 진보적인류의 열화같은 흠모의 경의가 어린 혼장보존실들과 절세위인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혁명적대경사의 해로 빛내이며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다그쳐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드리는 감사전문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제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은 민족해방의 은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3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뜻깊게 맞이하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장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을 높이 받들고 《총련결성 60돐을 새로운 전성기로의 비약의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혁신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벅찬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61차로 보내주신 2억 3 80만명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무한한 감격속에 받아안았습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957년부터 오늘까지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총액은 실로 475억 6 919만 390부의 거액에 달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철주야의 초강도 선군혁명령도로 반미최후대결전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진두지휘하시는 그 도록 분방하신 속에서도 제일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을 한시도 잊지 않고오시 또다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었으니 우리모두의 가슴가슴은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끓여넘치는 감사의 정으로 한없이 실재되고있습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민족교육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사랑과 배려를 다 들려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와 총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비길데 없는 은정을 거듭 받아안은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을 힘차게 벌리고있는 조국인민들과 발걸음을 같이하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인 총련의 민족교육을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에 더욱 빛내어나갈 불같은 결의로 총탄되어있습니다.

우리들은 전체 교육일군대렬을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 원수님과 함께 라면 온갖 시련과 난관도 영광이라는 불굴의 의지를 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단결과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가는 해외교육일군대로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것입니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민족교육사업을 제일조선인 운동의 생명선으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라고 하신 가르치신 대로 민족교육사업을 애국운동의 중심에 놓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자랑하는 새 세대들을 총련위업의 바름,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뜻깊게 이어나가는 유능한 민족인재, 참다운 애국자로 더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민족교육지원사업을 전조직, 전동포적인 운동으로 힘차게 벌려 학생대렬을 높이고 학교운영의 자립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민족교육의 제반 련리를 옹호확대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총련결성이래 절정에 이른 일본당국의 총련탄압, 민족교육탈살책동에 단호히 맞서 전체 일군들과 동료들의 단합된 힘으로 총련조직을 굳건히 지키며 민족교육의 순결성, 합법성을 기어이 사수해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의 립지조건을 최대로 살려 조국의 강성국가건설에 특색있게 기여하며 민족단합사업을 강력하게 벌려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문 열어 열어 해로 빛내이고 능동적인 대외 활동으로 총련과 민족교육의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더욱 튼튼히 꾸려나갈것입니다.

그러하여 조국해방 70돐과 총련결성 60돐을 맞이하는 뜻깊은 올해에 전체 일군들과 동료들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민족교육사업에서 앞장 선 사업실적을 이룩함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은정에 충정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끊임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고계시는 선군조선의 심장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과 안녕은 우리모두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며 한결같은 소망입니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전체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한마음을 담아 통일강성국가건설을 위하여,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최고령도자이시며 제일동포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육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주제104(2015)년 4월 13일 일본 도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꽃바구니 진정

【평양 4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전체 근대와 인민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리고 있다.

15일 각지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으로는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그늘과 경모의 정을 안은 군중들의 물결이 끊없이 끊이쳤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부 부대, 평양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었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땡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었다.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무력부, 인민보안부, 만경대혁명학원, 만수대장작사를 비롯한 평양시내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동상과 태양상들도 다함없는 경의의 꽃물결이 흘렀다.

각지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도 자기 고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을 찾아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들을 진정하였다.

그들은 자주로 존엄높고 자위로 굳건하며 자립으로 위대한 사회주의강국을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과 태양상들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끝없는 강성변영을 위하여,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억 세계 싸워나갈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일조우호 소고원민의 회, 싱가포르조선교류

회와 전일본부수상 가메마루 싱 가족, 진달래야동기금 회장 진달래 씨파리니가 14일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4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꽃바구니의 땡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이에 앞서 중국 무송현 실험소 학교 성주중대와 김일문학중학교에서 꽃바구니들을 보내어왔다.

본사기자

꽃바구니들의 땡기에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씨가 쓰여져있다.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나이지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련방공화국 대통령인 굴락크 에베레 요나란

무력총사령관이 꽃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14일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꽃바구니의 땡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이신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는 영생할것이다》라는 글씨가 쓰여져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도이쾰란드반제연단, 캐나다 마이클 스펙보상담소 소장 백범문화교류사 사장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본사기자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 꽃바구니 진정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태양절에 즈음하여 14일

주조 경제 및 무역참사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그들은 회세의 정치원리이시며 인류가 낳은 대성인이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 경의 표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주조 외 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판들,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들, 제17차 김일성화축전에 참가하고있는 외국 손님들과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 제중조선인총련합회대표단

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독창적인 사상리론과 비범한 정치실력, 세련된 령도로 나라의 통일번영과 인민의 행복, 세계자주와 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 안고 절세위인들의 립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홀에서 그들은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려왔다.

외국 손님들과 해외동포들은 혼장보존실들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현지도와 외국방문의 길에서 리용하신 승용차와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전동차, 배, 렬차보존실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방문록에 글을 남기었다.

이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와 김정일동지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경의를 표시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에 즈음하여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 만경대 방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에 즈음하여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이 15일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주체의 태양이 솟아 오른 유서깊은 만경대를 찾은 그들은 선군혁명위업의 개척자이시며 건국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늘과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만경대혁명사적관에 전시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보면서 그들은 위대한 사상과 령도, 숭고한 덕망으로 이 땅위에 민족제생과 조국번영의 새 역사를 펼쳐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가슴뜨겁게 되새기었다.

이어 그들은 경건한 마음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 트라에 들어섰다.

유년녘은 초가집에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그들은 어린시절부터 이민위원의 사상과 혁명의 큰 뜻을 키우시며 위대한 혁명가로 성장하신 아버지수령님과 대대로 애국, 애족, 애민의 넋을 이어오신

만경대일꾼들의 위인적공로를 다시금 절감하였다.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은 만경대 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전체 방문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태양으로, 백두산대국의 영상으로 헌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으로, 백두산대국의 영상으로 헌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혁명적열의에 넘쳐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경축 연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3돐경축 연회가 1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장은 주체의 빛날로 민족의 앞길에 평평한 미래를 펼쳐주시고 조부와 선군, 사회주의의 한길로 우리들을 이끄시어 이 땅위에 불패의 인민들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군들과 우당위원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남승우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대표단들과 동료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구 대표가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부, 무판부부들을 비롯한 외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애국가로 추악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태양정충의 찬가가 온 행성에 울려 퍼지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끊임없이 만발하는 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인류정지에는 우리 수령님과 같이 위인이 지닐수 있는 품격과 자질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시고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던 시대와 혁명을 이끌어오신 걸출한 인민을 이끄시어 이 땅위에 불패의 인민들의 강국을 일떠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력사의 초행길을 헤치시며 불패의 당과 국가, 군대를 건설하시고 이 땅위에 인민위원의 숭고한 리념이 꽃피어나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어 주체혁명만의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시었다.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어 우리 인민이 수령님, 장군복을 대대로 누리는 태양민족의 영광을 지닐수 있었을 것이며 20세기가 반제자주 독립,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의 세기로 될수 있었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우리 당의 숭고한 혁명적도덕의리에 의하여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의 태양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영생하시고 수령님의 거룩하신 혁명생애와 력사는 주체년호와 더불어 오늘에 울려 퍼지고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불멸의 꽃 김일성화가 끊임없이 만발하는 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상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렸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지니고 백두산위인들의 사상과 위업, 불멸의 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며 수령님들께서 한성토록 걸으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 갈래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망,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중앙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을 펼쳐나설수 있도록 당창건 일흔돐과 조국해방 일흔년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통일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며 세계의 자주화와 인류공평의 번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에 대해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번영과 김정은시대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태양을 그리는 인민의 뜨거운 마음

다함없는 경모의 정념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따사로운 봄빛이 흐르는 내 조국 땅에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4월 15일의 봄명절이 왔다.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의 모습을 그리며 주체의 최고 성지로 달려온 전사, 제자들의 절절한 마음에 실려서인듯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문이 활짝 열렸다.

조국해방 70돐, 당창건 70돐을 맞은 이해의 태양절을 의의깊게 보내려는 뜨거운 마음을 안은 수많은 사람들의 물결이 대외되어 세차게 굽어쳐올랐다.

오늘도 우리모두를 어서 오라 부르시는듯 햇빛같이 환히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태양상.

우러르면 우러를수록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은 정녕 위대한 태양이시구나 하는 숭엄한 감정이 저절로 솟구쳐올라 온 광장이 뜨거운 격정으로 끓어번졌다. 만물의 소생을 알리는 이 봄계절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들의 거룩한 혁명력사가 오늘도 어떻게 흐르고있는가를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뜨겁게 전해 주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 민족의 100년사는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강성변방도 있다는 철의 진리를 뚜렷이 확증해준 역사입니다.》

거대한 역사적사변들을 안고 태동하는 이해의 뜻깊은 봄명절에 활짝 열린 금수산태양궁전의 넓은 광장을 찾은 사람들은 누구나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며 쉬이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

우리가 처음 만난 사람은 서성구역 광장 1동 10인민반에서 사는 최덕영도인이었다.

가족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께 삼가 인사를 드린 그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찾은 봄의 정서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4월의 봄명절이라고 늘 일바릇처럼 외워왔는데 조국해방 70돐을 맞은 이해에 여기 서고보니 정말 그 의미가 새롭게 느껴집니다.》

조국해방의 새봄이야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의 뜻깊은 4월 15일이 먼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홍분노는 웃으며 그의 말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게 하였다.

무릇 한해의 첫 계절로 만물에 재생의 기운을 안겨주며 찾아오는 이 땅의 봄은 새싹이 움트고 온갖 꽃들이 활짝 피어 터지면서 한껏 향기를 풍기는 약동의 계절이라고도 할수 있다.

해방전 우리 인민에게는 그 봄이 없었다. 나라없던 그 세월의 이 계절에도 산과 들에는 꽃이 피고 싹이 돋아났었다. 하지만 봄의 향기를 느낄수 없었던 우리 인민이었다.

왜놈에게 끌려가는 어린 딸자식들을 애라게 부르는 이 나라 어머니들의 설움고인 눈에 어찌 꽃이 보일수 있었고 씨뿌릴 제방 한평기조차 없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어떻게 푸른 들이 정겹게 안겨줄수 있었으랴.

하기에 한 시인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들을 빼앗겨 봄마저 빼앗겼다고 땅국노의 설움을 터치기도



하였던것이다.

불러도 불러도 오지 않던 내 조국의 봄은 우리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의 그 봄날이 있어 신을 속히 허덕이던 이 땅에, 눈물로 얼어든 인민의 가슴마다에 조국해방의 새봄으로 찾아오기 시작하였다.

땅국의 피눈물을 뿌리던 겨레에게 조국해방의 새봄을 안겨주시기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 수많은 타향의 봄들을 맞으시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통상교초를 겪으시며 맞고보내신 그 봄날들이 있어 해방전 화전민의 자식으로 태어난 최덕영도인도 조국해방의 새봄과 더불어 자수적인 새 생활을 꽃피울수 있었고 그의 가정도 로동당시대의 자랑스러운 한식술로 될수 있었다.

이것이 어찌 그의 한가정에만 있는 행복의 로정이라고 할수 있으랴.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봄은 정말 남다른 계절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광장을 찾은 국립교예단의 일군인 리순광동무의 이 말은 우리의 사색을 잊지 못할 봄날들에서 이 끌어왔다.

80여년전 4월의 봄날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함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와 함께 타향에서 봄을 맞으시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남기신것도 주제 30(1941)년의 봄날이었다. 우리 수령님을 전제 인민의 한결같은 녀림과 축원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원수로 높이 모신것도 20여년전 봄이었다.

어찌 그뿐이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인 4월 15일의 갈피갈피를 먼저 보아도

인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의 한평생을 수놓으신 그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사연깊은 이 봄날에 얼마나 뜨겁게 새겨져있는가를 잘 알수 있다.

해방후 처음으로 맞으시는 탄생일에도 나라의 예술발전문제를 두고 깊이 마음쓰시었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어느해 4월 15일에는 군인들과 함께 계시며 혁명적인 노를 더 많이 창작할데 대해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아버지수령님, 언뜻듯듯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며 보시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한 영로인도 조국해방의 새봄과 더불어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어느 탄생일때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어 후대사랑의 숭고한 자욱을 수놓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뜻깊은 탄생일에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교원이 받아안은 강령적인 가르치심이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잊을수 없는 사연,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외보와 장학금이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벌리신 대의 활동을 비롯하여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혁명가의 거룩한 한평생이 4월의 이 봄명절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수놓아져있는것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봄날이 있어, 조국해방의 새봄을 방도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고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어느 탄생일때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어 후대사랑의 숭고한 자욱을 수놓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뜻깊은 탄생일에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교원이 받아안은 강령적인 가르치심이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잊을수 없는 사연,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외보와 장학금이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벌리신 대의 활동을 비롯하여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혁명가의 거룩한 한평생이 4월의 이 봄명절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수놓아져있는것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봄날이 있어, 조국해방의 새봄을 방도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고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어느 탄생일때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어 후대사랑의 숭고한 자욱을 수놓으시던

우리 수령님이시었다. 뜻깊은 탄생일에 김일성종합대학의 한 교원이 받아안은 강령적인 가르치심이며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던 잊을수 없는 사연, 제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외보와 장학금이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정력적으로 벌리신 대의 활동을 비롯하여 자애로운 어머니, 위대한 혁명가의 거룩한 한평생이 4월의 이 봄명절마다에 얼마나 뜨겁게 수놓아져있는것인가.

아버이수령님께서 탄생하신 4월의 봄날이 있어, 조국해방의 새봄을 방도에 대해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고 사회주의건설시기의 어느 탄생일때에는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찾으시어 후대사랑의 숭고한 자욱을 수놓으시던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위대한 태양의 탄생과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소중히 자리잡은 행복의 봄, 희망의 봄이기에 인민은 또 한분의 걸출한 선군태양이신 우리 장군님의 탄생일을 노래할 때에도 2월은 봄이라고 그리도 격정을 터뜨리는것이리라.

《여기 주체의 최고성지에서 봄에 대해 생각하느라니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늘 울리던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의 선율이 떠오릅니다.》

우리와 만난 대동강구역 청류2동 49인민반에서 사는 김만식동무의 말이였다. 가슴은 절로 뜨거워졌다.

오랜 당일군이었던 그가 전장을 도 로했듯이 우리 장군님께서 인민에게 강성국가의 새봄을 하루빨리

안겨주시기 위해 한평생을 바란제안 선군길에 계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행복의 봄날만을 안겨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쳐가신 선군의 자욱은 그 얼마나였다.

이 땅에 돌아치는 모진 눈보라는 자신들께서 다 맞으시고 인민에게는 화창한 봄날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하기에 해마다 태양절이면 인민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된다.

아마도 봄은 아이들의 계절이고 학생들의 철인듯기도 하다. 그래서 봄은 그들에게서부터 먼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태양절을 맞으며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을 찾은 사람들속에는 학생소년들과 대학생들이 류다르게 많았다. 아롱다롱 색동저고리를 입은 어린이들이며 우리 당의 은정이 어린 산뜻한 교복차림의 학생들이 수없이 찾아온 여기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활짝 피어난 자연의 아름다움과 어울려 마치 하나의 꽃바다가 된듯싶었다.

형제산구역 신간소학교의 장원아 소년단지도원은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던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함께 온 학생들을 우리앞에 내세웠다.

한평생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기쁨도 행복도 새 세대들의 미더운 성장속에서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의 력사가 오늘도 어떻게 뜨겁게 흐르는가를 4월 봄명절의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은 소중히 전하고있었다.

사연도 깊고 추억도 깊은 봄, 참으로 이 계절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우리 인민들의 혈연적관계를 더욱 두터워 맺어준 잊을수 없는 시기였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절세의 위인들의 헌신적봉투의 숭고한 뜻이 아름답게 꽃피는 감동깊은 나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평생이 깃든 그 봄날들이 여기 성지의 사연깊은 공원에 아름다운 화원의 형상으로 꽃핀듯싶어 격정은 더욱 컸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유혼을 관철하는 길에서 일떠세운 수많은 기념비적창조물들과 깨끗한 총성으로 마련한 거대한 성과들이 광장공원의 희한한 선군길에 계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행복의 봄날만을 안겨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꽃피우시기 위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쳐가신 선군의 자욱은 그 얼마나였다.

이 땅에 돌아치는 모진 눈보라는 자신들께서 다 맞으시고 인민에게는 화창한 봄날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

하기에 해마다 태양절이면 인민의 마음은 금수산태양궁전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된다.

아마도 봄은 아이들의 계절이고 학생들의 철인듯기도 하다. 그래서 봄은 그들에게서부터 먼저 찾아오는 것은 아닌지.

글 본사기자 김 준 혁
사진 본사기자 정 순 예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되자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진행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만세!》라는 구호판들이 대회장에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 《소년단원들은 김정은강성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우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대회에는 각 도소년단체대표와 평양시 학생소년들,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봉태동지와 김용진내각부총리,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년동맹, 판계부문 일군들, 전경로명들, 공로자들이 대회에 초대되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는 시작되었다.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뜻깊은 올해를 위한 승리의 해, 혁명대경시의 해로 빛나기 위한 총동력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03돐경축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를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대동문의 날이며 이날이 있어 우리 조국은 태양의 나라로 온 세상에 찬연히 빛을 뿌릴수 있게 되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주체혁명의 소년혁명조직인 새날소년동맹을 비롯한 수많은 혁명적소년조직들을 무어주시고 평범한 소년들을 향일의 불길속에서 백두의 칼바람맞는 아는 불굴의 소년혁명가로

소년운동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승계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의 결과이다.

보고자는 전제 소년단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발걸음따라 백두의 혁명정신을 간직하고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미래를 떠메고갈 믿음직한 역군으로 역세기 자라나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인단식으로 진행된 조선소년단원대회 비서 최봉태동지의 선창에 따라 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이 선서하였다.

일군들과 전경로명들, 공로자들이 그들에게 붉은색리본을 매어주고 소년단원증을 달아주었다.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학생들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하자!》라는 구호에 목청껏 화답하며 소년단원의 첫인사를 하였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영웅 지영춘, 창덕학교 교장 강준호, 공훈체육인 려은희가 축하발언을 하였다.

그들은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학생들을 축하하고 영광스런 조선소년단의 한성원이 된 크나큰 긍지와 자랑을 안고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하고 몸과 마음을 튼튼히 단련하여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빛내이는 참된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가 될것을 당부하였다.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3돐에 즈음하여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대양절 경축 공연 진행

제 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대양절 경축공연이 15일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청년중앙회관, 국립연극극장, 동평양대극장, 윤이상음악당에서 진행되었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시내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공연들을 관람하였다.

각 도 예술단의 예술인들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대양절과 더불어 영원할 김일성민족의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담은 다채로운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서장 《대양절 봄명절》, 여성 5중창 《수령님 같이신분 세상에 없습니까》 등의 작품들에서 출연자들은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신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걸출한 사상과 탁월한 명도로 시대와 역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를 격조 높게 칭송하였다.

관람자들은 한평생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헌신과 로고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며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더 해만 가는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 있었다.

혁명의 폭풍우를 앞장에서 헤쳐시며 정력적인 로고로 강성변영의 역년기들을 마려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애국 헌신의 만단사연을 노래한 여성독창과 방창 《붉은 철령》, 녀

성독창 《내 나라 어데 가나 내 조국 어데 보나》 등의 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여성독창과 방창 《행복한 내 나라》, 남성독창 《풍년새가 날아온다》, 여성 4중창 《들라라라 최첨단을》, 단막극 《유령의 새벽》, 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 《인민의 환희》를 비롯한 작품들에서 출연자들은 대를 이어 수령님, 장군복을 누려가는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갈 억척 불변의 신념을 힘있게 구가하였다.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대양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어 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는 영원히 흐를것이라는것을 철리로 새겨준 공원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은 나라에 혁명적사상공세의 불바람을 세게 일으키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해온 예술선진대원들, 기둥예술선진대원들, 예술소조원들도 경축공연무대를 펼쳤다.

출연자들은 민족의 태양이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인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흠모하는 위대한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혼성중창 《우리의 큰 명절》, 여성 5중창 《수령님 한복속에 우리의 사내》, 심희숙극 《영원한 태양의 열과 정이여》 등의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 애민의 뜻을 이어 끊임없는 헌신의 초강도 강행군 길을 걸고 걸으신 어버이장군님에 대한 사투리를 그리움을 형상한 실화이야기와 노래 《그이 없인 못살아》, 제담 《사랑의 우리 집》을 보면서 관람

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과 정을 그대로 이어주시며 천만군민을 한몸에 안아 위훈의 창조자로, 시대의 영웅으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우리 인민모두가 안겨살 위대한 어머니품이라는 진리를 가슴깊이 새기었다.

사상적대과 뚜렷하고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특색있는 작품들이 무대에 펼쳐질 때마다 관람자들은 날로 발전하는 대중문화예술의 면모를 절감하며 출연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었다.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근로자들의 로동생활과 결부되고 기쁨분배, 휴먼새가 나는 예술선동화풍과 예술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나날에 창조된 혼성중창이야기 《비악의 노래》, 《우리가 피자》, 민중기악명창 《창성은 좋아》, 제창이야기 《청춘도시 평양으로》 등은 공연무대를 이채롭게 하였다.

제인 안산블로 작품의 내용을 잘 형상한 복제창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기악과 노래편곡 《철령아 새파라다》, 《바다 만 풍기》, 선동극과 복제창 《더 높이 더 빨리》, 가부 《황금산타령》은 관람자들에게 우리 당의 예술의 대승화발전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새겨안도록 하였다.

공연은 합창시와 합창 《우리는 당신밖에 모른다》, 합창 《승리는 대를 이어》로 절정을 이루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태양기를 뒤따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 나가는 우리 인민의 높은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준 공연들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대양절 경축 우표들이 나왔다

뜻깊은 대양절에 즈음하여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우표(개별우표 4종)들을 창작하여 내놓았다.

우표들은 자주시대의 가장 걸출한 수령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 인도네시아의 초대대통령이었던 수카르노, 캄보자의 노르돔 시하누크대왕, 라오스의 전 주석 카이손 롬비한과 이전 소련 최고소베트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수여해드린 인도네시아 공화국훈장 제1급, 캄보자왕실훈장,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국가금메달, 레닌관상 100훈 기념메달이 반영되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인격적위위를 가슴깊이 새겨안게 하는 우표들은 인류사주위업실현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회사의 전설적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과 그리움을 더욱더 불려일으키게 하고 있다.



- 청년중앙회관에서 -

청년학생들의 무도회 진행

대양절 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15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이 개선문, 평양제육관 광장을 비롯한 평양시내 무도회장들에 뜨겁게 끓어올랐다.

경축분위기로 설레이는 무도회장에 《대양절을 노래하세》의 선율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무도회들이 시작되었다.

청년학생들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전설적위인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영예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춤출결을 일으켜나갔다.

《내 나라에 영원한 수령님 나라》, 《수령님 은덕일세》 등의 노래에 맞추어 열정적인 춤가락을 펼쳐가는 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탁월한 사상리론활동과 비범한 명도력으로 이 땅을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백두산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차려졌다.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치신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에 넘쳐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정일부의 우의조》 등의 노래 선율에 맞추어 경쾌한 춤출동을 이어나갔다.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명도자》, 《변이 나는 내 나라》 등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무도회장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민족최대의 명절 대양절을 각지에서 성대히 경축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민족최대의 명절인 대양절을 성대히 경축하였다.

반만년력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태양을 모신 민족대통운의 날을 맞으며 온 나라 강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만대에 빛내이며 백두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갈 천만군민의 결의가 세차게 분출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인민군장병들, 각계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주체의 시조로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였다.

수도 평양과 각지의 극장, 회관, 야외무대들에서는 인민이 부르는 열화같은 위인칭송의 노래가 4월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졌다.

함흥북도예술극장과 자강도 예술극장에서는 대양절 경축 도급기판에 예술소조종합공연들이 《영원한 태양의 노래, 흥도의 노래》, 《만대에 영원할 위대한 태양의 노래》가 있었다.

출연자들은 민족의 태양,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못 잊어 그리는 도대 인민들의 마음을 담아 여성중창 《수령님 그리는 마음》, 여성독창 《수령님 한복속에 우리는 사내》, 남성독창과 합창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을 비롯한 작품들을 무대에 올렸다.

청년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서 펼쳐진 1000명대합창공연 《위대한 태양의 불멸의 혁명적 대원수님께 빛내어 가리》에서 출연자들은 오직 수령님만을 믿고 빈터에 사회주의락원을 일떠세운 전세대들의 투쟁기풍으로 살며 투쟁한 전제 건설자들의 맹세를 《애국가》, 《사랑가》,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조국보위의 노래》, 《발걸음의 우렁찬 함창》으로 터쳤다.

함흥고도에예술전문화교 교직원, 학생들과 신의주시 청소년학생들, 념원들의 경축공연, 대합창공연이 진행된 함흥대극장, 신의주광장 등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으로 살며 투쟁하는 헌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차려졌다.

중앙과 지방의 각급 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는 다채로운 체육 및 유희오락경기가 성황을 이루었다.

함흥광장은 함흥시 념원일꾼들과 념원들, 학생소년들의 조로조선의 해 개막행사가 14일 로씨야의 모스크바에서 진행되었다.

행사장에는 두 나라 국가가 계양되어있었으며 조로친선관계발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행사는 내각부총리 로두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대사관성원들과 우리 프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명령전대표, 원동발전상, 국외 향인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들, 위무성, 운수성, 교육과학성, 문화성 부수상들을 비롯한 관계자들, 로씨야인민공화국 친선 및 문화회 조로씨야협회, 로씨야철도주식회사, 브리크그룹 등 학계, 사회계, 기업계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로씨야인민공화국 국가가 주악되었다.

행사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우리 프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명령전대표는 오랜 친선의 역사를 가지고있는 로씨야 두 나라가 로씨야의 위대한 조국전쟁 승리 70돐과 조선해방 70돐을 맞는 올해를 친선의 해로 정하고 개막행사를 진행하게 된것은 전통적인 로조관계를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려는 쌍방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특사의 로씨야방문을 통하여 두 나라사이의 정치관계는 적극적으로 발전하고있으며 이는 쌍무

우리 나라 내각부총리와 로씨야 정부 부수상 회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부총리 로두철동지와 우리 프루트네브 로씨야정부 부수상 겸 원동련방주재 대명령전대표의 회담이 14일 로씨야 부정부에서 진행되었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 성원들과 로씨야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상대측에서 원동발전상과 위무성, 원동발전성, 재정성 부수상들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조로 두 나라가 조선해방 70돐, 로씨야의 위대한

우리 선수들 2015년 국제빙상동맹 세계발전컵 짧은주루 속도빙상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쟁취

우리 나라 선수들이 2015년 국제빙상동맹 세계발전컵 짧은주루 속도빙상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 11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열린 이번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와 인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11개 나라의 남녀 선수 6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

김별성선수는 청소년 1부류 경기에서, 김대성, 리진미선수들은 청소년 3부류경기에서, 방리향선수는 청소년 4부류 경기에서 각각 우승하였다.

대양절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 진행

대양절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회고모임이 15일 남포항에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먼저 남포시에 모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삼가 인사로써 축하하였다.

모임에 앞서 그들은 우리 조국과 태양민족의 천만년미래를 지켜주고 담보해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선군조선의 존엄을 온 세상에 펼쳐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돌아보았다.

모임장소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바나나국적선박 《형인》호》, 《카이양》호의 선장, 선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설자들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었다.

조로친선의 해 개막행사의 개막행사를 진행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산토메 프리시페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로씨야는 로조친선의 해 행사 계획에 반영된 여러 분야의 공동행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쌍무경제협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갈것이라고 그는 확인하였다.

내각부총리 로두철동지는 조로 두 나라가 올해를 조로친선의 해로 정하고 개막행사를 진행하게 된것은 친선협조관계를 두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산토메 프리시페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인 평도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조선방문의 날들을 회고하곤 한다.

그는 두 나라사이에는 깊고도 오랜 친선협조관계를 맺어온 두 나라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게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역사적인 사변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김일성각하와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정력적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산토메 프리시페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

이시다.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두리에 하나로 뭉친 조선인민이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위업을 받들어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고 모든 분야에서 계속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산토메 프리시페인민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과 자주통일업을 변함없이 지지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태양의 력사는 영원무궁하리라

뜻깊은 태양절을 경축하여 수도 평양에서 축포 발사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경축하여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축포발사가 있었다. 15일 저녁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높이 모신 만수대 언덕과 대동강반, 반월도, 통라 다리를 비롯한 시내의 곳곳은 태양절경축의 장쾌한 축포가 터져오를 시각을 기다리는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로 차고 넘쳐났다. 군중들의 가슴마다에는 반만년 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민족의 아버지,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설레이었다. 20시 《김일성대원수 만만세》의 노래가 장중하게 울려 퍼지자 형형색색의 축포들이 터져 올라 태양절의 밤하늘을 불꽃으로 뒤덮었다. 현대조선의 새 기원이 열린 대동운의 날, 대경사의 날을 경축하는 축포성은 천지를 진감하고 활화산처럼 터져오른 축포는 황홀하게 부서져내리며 아름다운 일만경을 펼쳐었다.

항일의 눈보라만리, 전화의 불길만리를 헤치며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고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우시어 혁명과 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님은 진정 우리 조국과 인민을 지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영웅조선, 영웅적 인민으로 세계에 빛내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시었다. 황홀경을 이루며 끝없이 펼쳐지는 불보라들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바라보며 군중들은 인류가 낳은 가장 걸출한 위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다. 그들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신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모시어 우리 조국은 불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수 있었으며 우리 인민은 가장 존엄하고 행복할 인민으로 될수 있었음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장쾌한 축포성이 하늘땅을 진감하고 충천하는 화광속에 각양각색의 불보라, 꽃보라들이

경축의 밤하늘가를 명절일색으로 단장하였다. 이 세상에 다시 없을 태양복, 수령복을 누리는 천만 아들딸들의 최상최대의 행운을 노래하는 《태양절을 노래하세》, 《내 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의 선율이 울리는 속에 야공을 태가르며 줄축포들이 앞을 다투어 뿔어오르고 오색명품한 불꽃들이 신비경을 펼쳐었다. 아버지수령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태양의 위엄을 끝까지 받아들여갈 우리 인민의 신념의 맹세가

장엄한 피성이 되어 4월의 하늘가에 꽃없이 매어리쳤다. 군중들의 얼굴마다에는 태양의 력사가 영원하듯이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존함과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은 사회주의조선의 력사와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주체조선의 새로운 100년사는 보다 위창찬할것이라는 확신이 어 려있었다. 백두의 혁명정신, 약동하는 젊음으로 세계를 주름잡으며 노도쳐가는 선군조선의 억세 기상이런듯 《단순예》의 노래

선율이 힘차게 울리면서 무수한 불꽃기둥이 기백있으면서도 담차게 하늘을 꿰지으며 솟구 쳐올랐다. 갖가지 조화를 부리며 천변만화는 불보라들은 또 한분의 회색의 백두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전진해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걸리를 깊이 새겨주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손길아래 인민의 모든 리상과 꿈이 세기와 년대를 이어 자랑스런 현실로 꽃피어나는 사회주의 내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며 《희망찬천 나의 조국아》의 노래소리와 군중이 러친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뜻깊은 태양절의 하늘가에 터져오른 경축의 축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절세위인들의 필생의 뜻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갈 천만민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조선중앙통신】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제4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이 15일 제17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경사스러운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아름답게 피어난 태양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꽃축전장을 돌아보면서 그들은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리여있었다.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흥모의 마음과 지성에 떠날줄라 불계롭게 피어날

김일성화를 보면서 참관자들은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다 바치셨으며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할 공적을 쌓아올리신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와 전시대들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메지 못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며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진두장들마다에서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울려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태양절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 진행

태양절경축 해외동포들을 위한 연회가 15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표단, 재미동포진국련합회 대표단, 제미동포진국련합회 대표단, 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이 초대되었다.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관계부서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영상이신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영성을 기원하였으며 21세기의 선군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안면을 삼가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야영 시작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각지 소년단야영소에서 첫기야영이 시작되었다. 야영에는 지역체를 겸비한 강성조선의 유능한 혁명인재, 백두산대국의 억센 기동감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학습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과 좋은일하기 운동에서 모범을 보인 소년단원들이 참가하였다. 야영생들의 얼굴마다에는 학생소년들의 행복한 오늘과 찬란한 미래를 굳건히 지켜주시고 빛내여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어려있었다. 첫기야영시작모임이 15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 앞서 야영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조선중앙통신】

태양절경축 연회 로씨야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

태양절경축연회가 14일 로씨야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었다. 연회에는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로씨야 원동발전상, 올라지미르 추로브중앙선거위원회 위원장과 국가회의, 통일로씨야당, 평화 및 통일당, 자유민주당, 외무성, 국방성, 경제발전성, 운수성, 원동발전성, 비상사태성, 교육과학성, 문화성, 내무성 내무군악가메미야협주단, 21세기관현악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친선 및 문화회 로씨야협회, 과학원 국동연구소, 따스통신사, 리아

노보스체통신사, 인페르락스통신사 등 국회, 정당, 정부성, 단체, 기관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로씨야를 방문하고있는 내각부총리 로두첸코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단과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인민군대표단 성원들, 김형준 로씨야주재 우리나라 특명전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오시어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립상화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

을 진정하고 송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이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과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돌아보았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올라지미르 올라지미로비치 부천대통령의 건강을 축원하여, 진통적인 조로친선협조관계를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